

인간 고유성의 본질을 묻다 『인공지능과 인류문명의 전환』

이서현 기자 is4203850@khu.ac.kr

우리학교 출판문화원이 인공지능 이후의 인간 고유성을 정면으로 묻는 책 『인공지능과 인류문명의 전환』을 발간했다.

미래문명원장 이한구(철학) 교수를 중심으로 AI 전문가 이경전(경영학) 교수와 인공지능 분야 연구자들이 모여 현대 문명의 전환기의 쟁점을 다루는 문명연구 총서 시리즈의 제7권이다. 교수들과 연구자들은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어떤 존재로 자리매김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이한구 교수는 AI 격변을 4단계로 설명하며 인류 문명을 완전히 바꾸는 변곡점으로 진단했다.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바둑 대전 ▲2022년 말 등장한 ‘생성형 AI(챗GPT)’ ▲‘에이전트 AI(행위형 인공지능)’로의 발전 ▲머리만 존재하던 AI가 물리적인 몸을 입는 ‘피지컬 AI(몸체형 인공지능)’ 및 휴머노이드의 등장까지 4단계다. 이

교수는 “머지않아 인간과 구분하기 힘든 로봇이 저렴한 비용으로 보급돼 가사 노동과 간병 등 일상생활의 물리적인 영역까지 완전히 대체하는 시대가 예견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런 AI 발전을 두고 “인간을 한 단계 발전시키면서도 동시에 인간을 예측시킬 위험을 품은 양날의 검”이라며 ‘주체성 역전의 가능성’을 지적했다. 인간이 고도화된 AI에 지속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결국 주인이었던 인간과 노예였던 기계의 지배 구조가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는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면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해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초지능’ 단계에 도달한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초지능 상태에 접어들기 전 다자간 국제 규범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AI에 무책임하게 기대면 인간이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AI 개발을 멈출 수는 없으며 개인 역시 AI를 적극



이한구 교수는 이런 AI 발전을 두고 “인간을 한 단계 발전시키면서도 동시에 인간을 예측시킬 위험을 품은 양날의 검”이라며 ‘주체성 역전의 가능성’을 지적했다. (사진=이서현 기자)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입장이다. 특히 현재 교육부는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초·중·고 내 AI 교육 시간을 늘리고 중점 학교를 확대하는 등 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 교수는 “초등학교부터 AI 교육을 필수적으로 도입하는 국가 정책이 단순한 기

능 교육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조언한다. 인공지능에 예측되지 않고 인간이 주인이 돼 능동적으로 질문하고 교정하는 방법, 즉 ‘어떻게 써야 인간의 권리와 존엄을 지킬 것인가’를 함께 가르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경전 교수는 <AI에 대한

오해 해소와 이해결 문제> 장을 통해 동일한 대상을 전혀 다른 공학적으로 바라본다. 그는 인공지능을 사람처럼 느끼고 생각하는 존재로 의인화하는 시선을 가장 큰 오해로 꼽으며 “AI를 인간 같은 존재가 아닌,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기계를 만드는 기술로 봐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학생들이 단순히 AI를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챗봇과 에이전트를 만들어볼 때 비로소 인공지능을 하나의 도구로 객관화할 수 있다”며 AI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루어야 할 학습 대상으로 끌어당긴다.

『인공지능과 인류문명의 전환』이 흥미로운 점은 철학자와 공학자의 상이한 기준과 해석을 한 권에 담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독자는 인공지능을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배우고 활용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게 된다. 인공지능을 둘러싼 낙관과 공포 사이에서, 기술 자체를 넘어 인간과 문명에 대해 다시 한번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여덟 명의 선녀로 표현한 이상형

경희기록관 이금화

경희의 유산 ④ 『경희인상』

서울캠퍼스 교시탑을 지나 호텔관광대학 옆 언덕길을 오르다 보면 갈림길이 나온다. 오른쪽은 미술대학으로 향하는 길, 왼쪽은 경희여중·고로 내려가는 길. 그 너머로 선 동호가 펼쳐져 있다. 그곳에 여덟 명의 인물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형상을 한 청동빛 조형물이 서 있다. 흔히 ‘팔선녀상’이라 부르는 이 조각상의 정식 명칭은 ‘경희인상(慶熙人像)’. 1969년 개교 20주년을 기념해 경희학원 교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제작했다.

너비 6.6m, 높이 3.3m 규모의 이 조각상은, 무지개 모양의 아치 위에 여덟 명의 선녀가 한국 전통 악기를 하나씩 들고, 사이좋게 몸을 맞댄 채 줄지어 날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인물이 여덟 명인 것은 종합학원 체제인 경희학원의 교육기관이 당시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총 8개였기

때문이다. 설립자 조영식 박사의 아이디어를 미술대학 이종각 교수(당시 사범대학 미술교육과 강사)가 형상화했다. 1969년 10월 30일 열린 경희인상 제막식에는 경희유치원 원생부터 대학원생까지 구성원 1만 5천여 명이 모였다고 한다.

그런데 조각상 속 인물을 왜 선녀(仙人)로 표현했을까? 제막식 당일 발간된 대학주보에는 그 이유가 비교적 상세히 소개돼 있다. “신통 자재하고, 변화 무변한, 즉 도통(道通)한 사람을 선인(仙人)이라고 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호연지기의 기상으로 끊임없는 노력과 창의력을 발휘해 나날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경희인들은 이제 이상을 거울 삼아 악한 마음을 없애고, 보다 더 아름답고 깨끗하고 선의에 가득 찬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적 미를 표현한 선녀의 모습을 통해 경희의 젊은 학생들이 지닌 꿈과 낭만을 나타내고, 여덟 명이 사이좋게 날아가는 모습은 경희인의 굳은 협동심을 표현하고자 했다. 또 푸른 하늘을 향해 웅비하는 모습은 한없이 뻗어가는 경희인의 상상력과 창

의력을 표현하는 동시에 경희인의 진취적 기상을 나타낸다.

지금은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처음 조각상이 세워질 당시 무지개 모양의 아치에는 문장이 하나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1949년 개교 이래 20여 년간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역사를 창조해 온 경희인들에게 줄곧 지표가 되었던 ‘이상은 천국을 날고 의지는 역경을 극복한다’는 문구다. 경희인상 제막식이 열리던 날, 맑은 가을 하늘을 장식한 대형 애드벌룬과 오색 풍선 아래 경희의 캠퍼스는 그야말로 잔칫집이었다. 선동호에 조성된 폭포에 처음으로 물을 흘려보내는 낙류식(落流式)이 열렸고, 지금은 사라진 대운동장의 본부석 낙성식도 이날 오후 연이어 개최됐다.

선동호를 흐르던 분수 소리도, 드넓은 대운동장을 내려다보던 높은 본부석도 지금은 만날 수 없는 추억 속 존재가 되었지만, 경희인상에 새겨져 있던 그 문구는 ‘의지는 역경을 뚫고 협동은 기적을 낳는다’는 문구로 이어져 지금도 여전히 학생회관 입구 머릿돌에 남아 있다.



개교 20주년 경희인상 제막식이 열린 1969년 10월 30일, 수목이 우거진 현재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이다.